

집중호우·가뭄 문제없다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에 우수저류시설 완공 50억원 투자... 피해 예방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 우수저류시설이 완공돼 집중호우 시 하천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이 가능해졌다.

동계면 현포리는 지형이 인근 오수천 홍수 수위 보다 낮아 집중호우 시 하천수위 상승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되곤 했다.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황숙주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소방방재청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 설득하는 노력 끝에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2016년 3월부터 50억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 올해 사업을 완료했다. 완공된 우수저류조는 6,400톤 규모로 배수관로 정비 1.1km, 당지내 도로, 상수도관 매설, 부대시설 등이 설치됐다.

이번 사업으로 현포리는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은 물론 저류된 빗물을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해 기상이변과 물 부족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했다. 또 평상시에는 휴식공간 및 주차장 등 다목적 시설



순창군이 지난 2016년 3월부터 50억원을 투자해 동계면 현포리 우수저류시설을 완공했다.

로 활용할 수 있어 지역민의 편익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해서 지난 14일 현포우수저류시설 준공식이 진행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김종섭 군의회 의장, 정성균 의원 등 군의원과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황숙주 군수는 "현포우수저류시설이 완공돼 갈수록 대형화, 다양화되는 자

연재난 발생시 침수 문제를 해결하고 가뭄 시 저장 우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현포우수저류 시설 이외에도 남계 시기마을에 100억원을 투입해 우수저류 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부가가치 과수산업 키우기 주력

임실군, 성공추진 위한 집중 워크숍 열어 사업화 방향 등 제시

임실군이 열매의 고장 명성에 걸맞게 차별화된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임실N과수사업단과 연구기관, 운영위원, 과수농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실과수산업 육성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경기도 이천 씨너 리더십센터 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과수산업 전문가들의 특강과 함께 임실N과수융복합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다.

첫째 날에는 농촌진흥청 김하운 박사의 '농산물 병·해충 기술'에 관한 특강과 임실군 김명진 농업정책과장의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의 시간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에스디자인 심종아 대표의 '홈페이지 구축방안'에 대한 발표 등도 진행됐다.



임실군은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임실N과수사업단과 연구기관, 운영위원, 과수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실과수산업 육성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 시간에는 과수가공품 소비시장 변화 대응 방안과 과수가공공장 운영을 위한 자회사 설립방안, 사업단 마케팅 전략 등 임실N과수융복합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됐다.

둘째 날에는 과수산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기관 현장견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이천 복숭아 연구소를 방문, 시설을 둘러보고 연구소가 개발

한 복숭아와인 등 가공제품들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다.

심민 군수는 "올해 우리 임실군은 열매의 고장이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고객감동브랜드 지수 1위를 차지하는 등 과수산업 육성에 최적의 지역임을 인정받고 있다"며 "과수융복합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창출하고, 새로운 농촌경쟁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공직생활 성공노하우 배운다

순창군 새내기공무원에 비법 전수·소양교육

순창군이 최근 임용된 신규공무원 32명을 대상으로 공직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비법 전수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군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문화의집에서 최근 공직에 임용된 신규공무원 32명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과 공직사회 적응을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은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장명균 부군수, 양동엽 기획실장이 강사로 나서 공직자로서의 소임과 자세는 물론 그동안 공직 생활을 통해 얻은 자신만의 성공노하우를 생생하게 설명해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큰방향점을 제시해 주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또 인사, 회계, 예산, 공무원의

의무·금지사항, 보고서 작성방법, 복무·문서 등 6개 분야에서 신규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실무 지식을 각 분야 베테랑 선배공무원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강의를 진행해 교육생들의 실무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도 큰 도움을 줬다.

황숙주 군수는 "공직자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마음가짐으로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적인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면서 "청렴과 성실을 기본으로 모든일에 적극적으로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교육은 훈몽재 선비길, 발효미생물진흥원, 향가토크캠핑장 등 순창군의 주요 현안사업장을 방문하는 현장교육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순창군은 내년에도 신규공무원 소양교육과 직무 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자체 교육을 진행해 공직자들의 능력향상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난 7일 자활유공자 포상 및 자활수기 당선자 시상식에서 김영자씨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성공수기' 공모에 당선된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각쟁이'의 자활 성공이야기 눈길

순창군 김영자씨 보건복지부 성공수기 공모 당선

2017년 12월 7일 자활유공자 포상 및 자활수기 당선자 시상식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인 김영자(64)씨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성공수기' 공모에 당선되어 표창과 함께 1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자활수기에 당선된 김영자씨는 '서울 각쟁이의 자활 고군분투기'라는 제목으로 응모하였으며 16년전 대기업에 재직중인 남편의 병환으로 서울 생활을 접고 농촌에 내려와서 남편의 병간호와 농사일, 원주민과의 관계, 그리고 4년여간 자활사업에 참여한 이자기를 진솔하게 담아 수상의 영광

을 안았다.

특히, 자활사업을 참여하면서 많은 일들을 접해보았지만 운전면허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을 큰 보람으로 여겼으며, 자활사업을 통해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이룬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했다.

김씨는 내년 2월이면 사업이 종료되어 계속 참여가 어려워 아쉽기는 하지만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으로 새로운 일의 도전을 구상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지적·토지행정 ' 으뜸' 추진실적 종합평가 최우수 선정

남원시는 전북도 주관으로 시행된 2017년도 지적업무 추진실적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2017년 지적 및 토지관리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도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2017년도 고품질의 부동산정보서비스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지적 관리, 지적재조사, 토지관리, 공간정보, 수법시제 등을 대상으로 좋은 평점을 받아 지적·토지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개인표창을 수상하게 되어 명실공히 지적·토지행정 추진 으뜸기관으로 자리매김 했다.

남원시 이원주시장은 민원과 지적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이 일심동체되어 지적·토지행정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격려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농기센터 6차산업 현장교육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에서는 지역영농취약 계층인 귀농·귀촌인에게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기초적인 영농기술과 우리지역 안정정착을 위한 교육을 2기에 걸쳐 추진해 오는 등 귀농·귀촌인의 영농정착과 소득기반 조성에 힘을 보태왔다.

또한 지역상생과 농업분야 소득기반 다양성 인식제고 필요성에 따라 농업트렌드 중 하나인 6차산업에 대한 현장교육을 12월 13일과 14일 걸쳐 3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다.

이번교육은 귀농·귀촌인에게 작목재배분야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지역의 농촌교육 및 체험농장을 방문해 체험프로그램 참여와 귀농인이 운영하는 농장을 방문하여 귀농정착 사례담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편성해 단순이론에만 그치는 교육에 비해 효과가 컸으며 교육이 끝난 후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선도농가 및 귀농인 간의 상호협력과 지속적인 멘토·멘티 관계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생의 주요반응을 보면 귀농·귀촌인들에게 아주초기 영농경험 및 지역민들과의 소통 부족 등으로 인한 초기적응의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농업분야에 대한 자신감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득기반 탐색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농업기술센터관계자는 이번 교육에 참여한 귀농인들이 영농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 농업소득원기반 탐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범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